The Case Against Perfection

Jee Hyun Ha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완벽에 대한 반론

하 지 현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

저 자: Michael J Sandel
원 제: Case Against Perfection: Ethics in the Age of Genetic Engineering
출판사: 와이즈베리
출간연도: 2016년 6월 27일[ISBN: 9788937838774(893783877X)]

어릴 때 ‘새소년’, ‘소년중앙’과 같은 어린이 잡지를 보거나 윤승운 화백의 ‘요철발명왕’이란 만화책을 보면 빠지지 않고 소개되거나 등장하는 상상의 기계가 있었으니 바로 ‘공부해주는 기계’였다. 머리에 그 기계를 쓰고 있으면 교과서의 내용이 그대로 머리로 입력이 된다. 가만히 앉아있기만해도 다음 날 시험은 백 점이다. 이게 좀 허황돼 보였는지 어린이 잡지에는 배개 모양의 기구가 소개되기도 했다. 이 기계를 베고 자면 다음 날이면 그 안의 내용물이 자연스럽게 머리 안으로 이식이 된다는 것이다. 노력하지 않고도 백 점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공상과학 만화의 물건들 중 여러 가지가 현실화가 되었지만 공부해주는 기계는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다. 가장 유사한 기계가 아마도 집중력을 높여주는 기계로 한때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엠씨스퀘어 정도가 아니었을까? 만일 학습을 도와주는 기계가 발명되었는데, 그 기계가 매우 비싸서 일부만 이용할 수 있다면 그건 사

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일까. 일부는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기계의 도움으로 남들만큼 기억해낼 수 있게 호전이 되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것이고, 일부는 가장 공평해야 할 교육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오래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능력치를 높여주기를 바라왔다. 돌이켜 보면 실제 지금껏 현실화된 의학이나 생명공학, IT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 중 일부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능력치를 높이는 곳에 사용된다.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 차원에서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라 할 수 있을까. 다음의 상황을 생각해본다.

1)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치료를 받던 소년이 십대 중반이 되어 집중력이 호전이 되어 정상수준이 되어 치료가 필요치 않은 정도가 되었다. 그렇지만 소년은 시험 때만 간헐적으로 복용하고 싶다고 한다.

2) 저성장증으로 지나치게 키가 작은 아이의 키를 늘이기 위해 사용하던 수술과 성장호르몬 치료에 ‘키 크게 해주는 치료’로 정상수준 키인 아이가 남들보다 큰 키가 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주사를 맞는다.

3) 무대에 오를 때 긴장을 많이 하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주 전에 심박 수를 떨어뜨리는 베타차단제 계열의 약을 복용하고 무대에 선다. 이것은 스포츠 선수의 스테로이드 복용과 다른 것일까?

과거 비정상적인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개발된 과학기술이 만일 정상 이상으로 성장하거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혹은 완벽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이런 인간의 욕망은 위험한 것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을까. 21세기 들어 과학의 발전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발달을 도덕과 상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많이 관찰되고 있다. 더욱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기도 훨씬 전에 일부 과학기술이 세상에 퍼져버려서

Address for correspondence: Jee Hyun Ha, MD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120-1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30, Korea
Tel: +82-2-2030-7569, Fax: +82-2-2030-7748
E-mail: jhnhha@kuh.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일상화되거나, 개인이 자기식으로 이용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신분석이나 정신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봐도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이 우리의 삶과 생각, 가치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나름의 판단기준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전적인 정신분석 관련 서적이거나 이론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답을 주기 어렵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각의 틀을 갖기 위해 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소개할 책이 마이클 샌델의 ‘완벽에 대한 반론(The case against perfection)’이다. 저자인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로 널리 알려진 하버드 대학 교수다. 그는 2002년부터 4년간 미국의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의 자문 위원으로 활동했고 이후에는 대학에서 ‘윤리학과 생명공학, 그리고 인간 본성의 미래’를 비롯해 다양한 강의를 하면서 배아줄기세포 연구, 생명체 복제, 유전적 강화 약물 복용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 고민, 윤리적 이슈를 다각도로 연구하고 토론을 한 고민의 결과물을 책으로 엮어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인간의 노력과 자연을 조작해서 랜덤의 가능성을 통제하는 것 사이에서 인간과 사회는 이제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 조언한다.

그는 보수적인 윤리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먼저 과학의 힘으로 능력치를 높이는 것은 금지하며 오직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만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아마추어리즘이 진정한 순수한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반박을 한다.

사실상 1920년대만 해도 진정한 아마추어리즘은 ‘코치 없이 선수 혼자 연습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운동선수가 금지된 약물로 운동능력을 높이는 것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인체공학에 입각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공기역학에 최적화된 수영복을 개발해서 착용하는 것은 왜 허용되는 것일까? 야구선수에게 압축배트는 금지하지만 좋은 스파이크를 신어서 달리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경계는 무엇인가? 또 마라톤 선수들 중 일부는 인위적으로 고산지대에서 장기간 훈련을 해서 적혈구 형성을 촉진한 후 나중에 산소활용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만일 고산지대를 가지 않고 이와 유사하게 저산소를 유지하는 텐트를 만들어 그곳에서 장기간 지내거나, 합성EPO란 물질을 주사해서 사용하는 것은 운동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하다.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을 먹는 것은 작용만큼 부작용도 분명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지만, 이 경우에는 생리적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는 허용하고 후자는 금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고산지대에 훈련캠프를 차릴 금전적 지원과 환경이 안 되는 선수는

경기력을 다른 식으로 강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는 정신분석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화 상담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 많은 토론을 했고, 최근에는 스카이프를 이용한 정신분석이나 정신치료가 어느 정도 수준 안에서 허용되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지금의 삶의 속도, 도시생활의 이동거리, 직장과 거주지의 잦은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주 4회의 정신분석적 치료를 수년간 꾸준히 받기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의 발전이 받아들여지지만 그 속도의 차이, 허용범위의 차이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서서히 그 선을 만들어가게 된다. 그 부분에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허용치에 대한 논의의 담론 틀을 책은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 인공수정이나 정자/난자은행을 이용하는 곳에서 환영받는 유전자는 고학력/매력적인 몸매이지, 유전병이 없는 건강한 신체가 아니다. 이는 자식이 처음부터 큰 키, 좋은 몸매, 매력적 얼굴과 머리색을 갖기 위한 나름의 노력인데, 이는 태어난 후에 성형수술과 다 이어트, 영재교육과 같은 사교육으로 후천적으로 극복해야 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고 나오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으로 불편한 일로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는 이런 조건을 가진 정자/난자를 한결같이 원한다.

마이클 샌델은 이런 세태의 변화, 부모와 각 개인의 욕망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한다.

신학자 윌리엄 F 메이의 말을 인용하면서 부모의 태도는 “선택하지 않은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여야 한다고 한다. 이를 따르지 않고 자녀를 설계하려는 부모의 오만함, 생명의 신비로움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가지면 선택하지 않은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공감과 겸손함을 잃게 된다.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타인에 대한 공감, 겸손함, 배려심을 잃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극대화하고 욕망을 현실화하는 이기주의로만 천착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나 현대사회는 정복과 통제를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타고난 개인의 능력을 찬양한다. 이때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아이를 만난다는 것은 부모가 한 개인으로 겸손을 배울 학교를 만나는 것과 같다. 원하는데로 자녀를 고를 수 없다는 사실은 예상치 못한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알게 한다. 즉,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인생의 불완전성, 비예측성을 감내하고, 불협화음을 수용하고 자기식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충동을 자제하는 것을 배워나갈 수 있다. 만일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유전공학과 생명과학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만 사용하려 할 때 세상은 혼돈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그런 면에서 유전학은 인간의 불완전성이 지닌 재능과 한계를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정치적 제도에 부응하여 함께 발전해나가야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 많은 SF영화가 예언하는 세상이 멀지 않은 시기에 올 것 같다. 저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니겠지 싶은 것 중 일부는 의외로 십 년 안에 우리 안방에서, 일상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잠깐 한눈 판 사이에 훗 하고 세상은 변화할 것이다. 여기에

휩쓸려 버리는 순간 SF에서 우려하는 무서운 ‘디스토피아’의 세상에 상상이 아닌 현실의 내가 내던져질 위험이 있다. 유토피아까지는 바라지 않는다해도 디스토피아를 피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윤리적 선에 대한 가늠자를 위한 가치관은 각자가 미리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책이다.